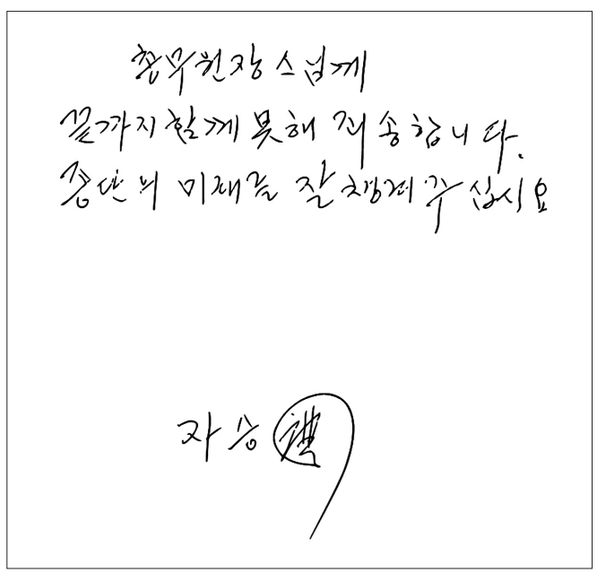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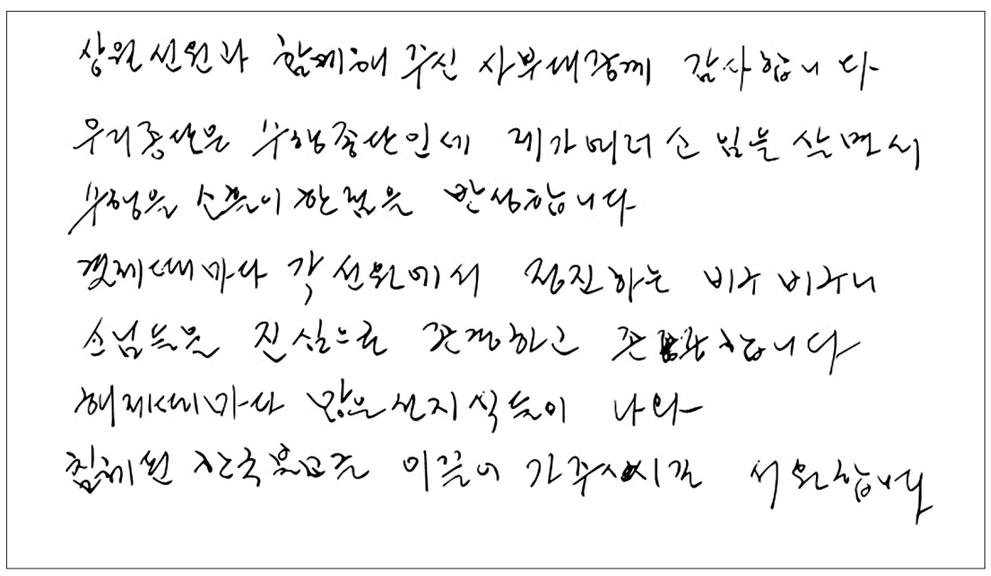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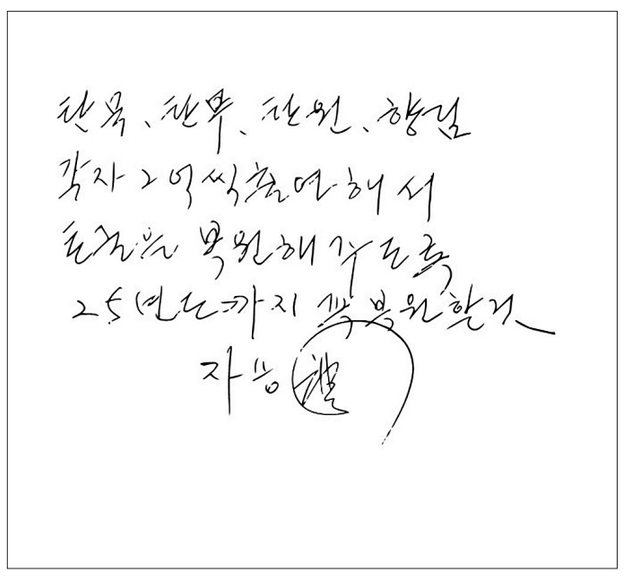






‘종단 걱정·참회’ 그리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남긴 유언들

진우 스님께 “함께 못해 미안하다”
상좌들에게 “칠장사 복원” 당부해

신중일 ·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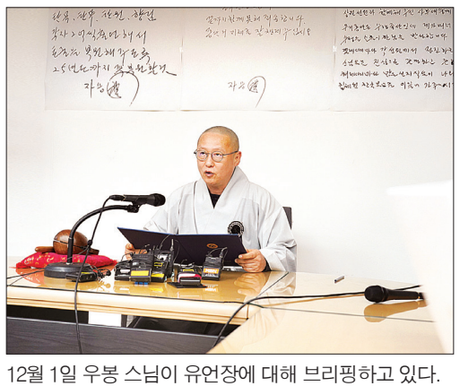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대종사의 유언장이 12월 1일 공개됐다.

12월 1일 발표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개된 자승 대종사의 유언장은 대종사의 주석처인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발견된 것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지난 3월 인도순례를 마치고 지인들과 차를 마시면서 나중에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숙소 내 특정 장소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우봉 스님은 “당시 지인들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대종사 원적 이후 한 지인께서 이 말씀이 떠올라 직접 숙소를 찾아가 유언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해당 지인 중에 상좌는 없었고 어른스님들만 계셨다”고 부연했다.

주석처에서는 10여 장의 유언장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언장을 제외한 3장을 공개했다. 3장의 공개 유언장은 이와 같다.

‘총무원장스님께,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상월선원과 함께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결제



12월 1일 우봉 스님이 유언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원)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025년까지 꼭 복원할 것.’

상좌스님들에 대한 당부를 제외하면, 모두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다. 우선 당신의 원적으로 많은 짐을 안게 될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대한 미안함이 담겼다. 종단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한 스님의 갑작스런 소신공양으로 벌어질 여러 사안들에 대한 죄송함과 그럼에도 부탁해야 하는 ‘종단의 미래’에 대한 당부는 종단의 어른으로서 안아야 할 책무의 무게감도 함께 느껴진다.

세간에 사판승으로 알려진대로 자승 대종사 스스로 소임을 보며 수행이 부족한 점을 참회한 점도 인상 깊다.

자승 대종사는 2017년 총무원장 소임을 마무리하고 바로 찾은 곳이 백담사 무문관이다. 이곳에서 자승 대종사는 두 번의 겨울을 보냈다. 2017년 첫 백담사 무문관 동안거에 입방에 대한 화두와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는 짤막한 화두로 답을 대신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는 것은 평소 자승 대종사가 강조한 전법 원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불교의 견성에 이르는 단계를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십우도의 마지막은 ‘입전수수(入廛垂手)’로, 각행(覺行)이 원만해진 상황에서 보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승 대종사가 불교 언론 기자단과 가진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불교 간화선에는 결제만 있을 뿐입니다. 해제하고 난 뒤에는 걸망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공부한 이야기, 화두 이야기,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해제 후 고통 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마지막 귀결점은 수행과 전법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바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법하는 것. 그것이 자승 대종사가 마지막 남긴 유훈이다.

전법·인재 양성·종단 운영…후학에 던진 화두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던진 한국불교 과제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우리에게 여러 화두를 남겼다. 생전 육성 중 후학들에게 가장 깊게 다가오는 것은 11월 27일 생전 마지막 인터뷰와 10월 31일 불교광장 간담회에서의 ‘작심제언’이다.

전법: 한국불교 지속 과제

자승 대종사에게 전법은 생활이었다. 그만큼 전법에 대한 열정은 오래된 경험에서 기인한다. 수원에서 종로의 총무원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며 노상 전도하는 교인을 보며 ‘우리는 참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소극적이구나’라고 생각한 대종사는 대덕사 주지를 살며 가가호호 전법을 다녔고, 1년 만에서 법회 참여 신도가 5명에서 150명까지 늘게 됐다. 이를 본 자승 대종사는 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전법행은 대종사의 생활이 됐다고 한다. 퇴임 후 대중들에게 설했던 법문 곳곳에는 전법에 대한 열정들이 묻어난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45년 동안 요즘 표현으로 포교만 하셨다. 열반 이후에도 제자에게 두 발을 보이시고, 다비를 통해서 여덟 나라에 사리를 분배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법을 전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보다는 불사하는 일에 집착한다.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 2023년 3월 14일 인도 대성석가서 법문 중

11월 27일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불교 인재 양성 부족에서 기인함을 지적하고 대학생 전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자승 대종사는 최근 불거진 정부의 ‘불교홀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종단에서 항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인사에 불교 인재가 없다는 것은 불교계가 인재를 양성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 분야에 불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생 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청년 전법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꾸준히 지적돼 온 전역 불자장병에 대한 지속관리 방안은 고무적이었다.

자승 스님은 “제대할 때가 되면 초코파이나 피자, 햄버거의 기운이 빠져버려 정작 사회에 나와서는 불교 신행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젠 무늬만 수계 군불자가 아니라 전역 이후 불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전역 후 불자장병이 대학에 복학하면 해당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가 동아리 활동을 안내하고, 대학생이 아니라면 지역 주지스님이 연락해 사찰음식을 먹으며 격려해 청년회 활동을 연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상월결사와 포교원, 군종특별교구가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논의하면서 방안을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는 △각 교구별 지역 거점대학에 신규 불교 동아리 1개 이상 설립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자 영(YOUNG) 캠프 △전국 대학생 불교음악축제 개최 등 계획이 제시됐다. 특히 2026년 3만 명을 목표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를 정례화하고, 한국 대학생 불자를 주축으로 세계 불자 청년 2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청사진은 주목해야 한다.

“세계 가톨릭청년 100만 명이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30만 명은 해외에서 오고 70만 명은 국내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침체된 한국불교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7년도에 우리 종단도 100만 명은 못 모은다 할지라도 최소 20만 명을 모아 세계불교 청년대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건재함을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부나 종회차원의 단순한 것보다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 10월 31일 불교광장 간담회

종단: 현실적인 방안 고민을

자승 대종사가 고민한 종단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효율적인 종단 운영 시스템이다. 생산 조직이 아닌 오로지 신도들의 보시로 운영되는 종단의 조직이 비대해짐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10월 31일 불교광장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 자승 대종사는 중앙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총무원과 산하단체 일반직 종무원 인건비다. 스님은 “현재 산하단체를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 종무원이 있다. 일반직 종무원은 급여가 매년 올라 10~20년이 되면 고액연봉자가 된다”면서 “말사 주지도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이 계속 높아지면 무슨 재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성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큰 틀에서는 1994년 이후 30년이 지난 종헌종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특위를 구성해야겠죠.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 종단 중진, 불교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2~3년간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1월 27일 인터뷰)

출가자 감소로 인하 중앙승가대의 위기에 대한 자승 대종사의 진단은 촌철살인에 가깝다. “출가를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밝힌 대종사는 “이런 상황이면 중앙승가대는 5년 안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승 대종사는 “중앙승가대가 폐교하면 50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교육기관으로 넘어간다.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는 없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국대가 함께 해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러 과제에 무엇이 필요할까. 자승 대종사는 모든 종단의 행정과 불사, 전법에 ‘공심(公心)’을 강조해 왔다. 사부대중이 공심으로 전법을 실천하고, 종단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심과 원력을 갖고 공심으로 회향하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이다. 사심(私心)을 가지고 사유화하고 욕심을 내왔던 것이 국민과 사회, 정치권으로부터 불교가 홀대받은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이 자성과 쇄신 결사의 배경이다.

2000만 불자라 하지만 불자라고 당당히 나서는 사람이 없다. 불교를 쉽게 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한목소리와 결집이 필요하다. 결사운동은 승가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실천을 통해 국민운동으로 승화돼야 한다. 사부대중의 실천 없이 불교는 변할 수 없다.”

(2011년 3월 19일 자정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결집대회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